장성 '청렴교육 일번지' 자리매김

3월에만 전국 공직자 600명 다녀가

브랜드 높이고 농·특산품 판매 효과

청렴체험 교육생들에 인기를 끌고있는 친환경 '청백리 밥상'

장성군이 '문불여(文不如) 장성'을 넘어 청렴문화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주목,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지의 공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남 부여군청 공직자를 비롯해 총 600명이 넘는 외부 공직자가 장성을 다녀갔다. 참여한 기관만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충남 부여군청, 광주시 북구청 등 7개 기관이다.

주로 1박 2일 일정으로 장성을 방문하는 이들은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과 지지당 송흠(1459~1547) 선생의 생애와 공직관 강의를 비롯한 백비(白碑)와 관수정 탐방 등을 통해 청렴정신을 배운다.

최근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청렴교육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오는 5월까지 충남 부여군을 비롯해 광주시와 전북도 교육연수원·농업정책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 등 참여가 예정돼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의 청렴교육 선호도 조사에서 경북 안동과 장성 가운데 80%가 장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교육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2개 기관에서 30여 차례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농·특산물 판매와 음식점 등에서 1억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불여 장성'이라는 말처럼 배울 것이 많은 교육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특산품 판매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 '청백리 밥상' 은 교육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1식4찬의 소박한 음식에 편백잎으로 찐 달걀로 영양을 보충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청백리 자연밥상으로 남도의 깊은 맛까지 충분히 살렸다는 것이 평가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의 청렴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청렴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경력단절 여성 53% 재취업 성공

도내 5곳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생…여성회관 직업훈련도 성과

전남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에 한몫을 톡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여수·순천·광양·장성 등 도내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교육훈련에 참가한 여성 345명 가운데 184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이는 취업 및 창업 성공률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김경애씨(49)는 여수 새일센터에서 전문독서코치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독서코치와 진로심리코치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와 독서논술을 담당하는 복지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시군 여성회관도 여성들의 재취업 및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 시군 여성회관에서 운용하는 직업훈련 수료생까지 포함할 경우 2045명의 수료생 가운데 43%인 889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657명(32%)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4월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훈련생 모집에 나섰다. 올해는 목포 새일센터가 '항만물류 전문인력' 과정을 순천 새일센터가 '농수산특산품 유통관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특화 과정을 개설해 총 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었다"며 "새일센터나 시군 여성회관이 재취업과 창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농철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은 지난 29일부터 6일까지 화순읍과 이서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수리는 봄철 주요 사용기종인 경운기·트랙터를 비롯해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 72농가 75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점검 수리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K water-전남도관광협회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와 전남도 관광협회는 지난 30일 사옥 회의실에서 영산강 주변을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부각 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water 전남지역본부는 국책사업을 통해 복원된 영산강 주변에 대한 신규 팸투어 여행상품 개발을 관광협회에 의뢰하고, 관광협회는 사전 답사를 통해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신송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로운 영산강 여행상품을 개발해 수도권 등 전국 여행객들을 유치, 관광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담양 금성리 일원 도농 교류 거점 조성 2015년까지 39억 들여

담양군 금성리 일원이 '금성산성'과 '대나무생태공원'을 연계한 도농교류 활동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된다.

담양군 금성면사무소(면장 신성호)는 지난해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선정돼 오는 2015년 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39억여원을 들여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금성산성과 대나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금성리와 덕성리 등 인근 5개 마을을 연계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오디·메주 가공공장과 참게 양식장, 공동 작업장 등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비롯해 체험시설과 도·농교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성면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예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추진위원과 주민 대표 등 40여명은 지난 27일 권역단위 사업 성공모델로 유명한 진안 능길권역과 청양 칠갑산 권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정년 앞당겨 퇴임… 노인당 청소로 취임식

시골마을 면장 아름다운 이·취임

노옥기 면장

김전환 면장

새로 부임하는 면장이 노인당 청소로 취임을 맞이하며, 물러나는 면장 또한 후진을 위해 정년을 앞당겨 물러나 공직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일자로 장흥군 장동면장으로 임명을 받은 김전환(54) 사무관이 의례적인 취임절차를 마다하고 직원들과 함께 장동면 수성노인당을 찾아 화장실 청소 등 봉사활동으로 취임 행사를 마쳤다.

또한 지난 3월말로 물러나는 노옥기(60) 사무관은 당초 오는 6월말에 공로연수(대기)를 들어가는데도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근무연한을 단축 아름답게 물러나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주민 안모(60)씨는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그동안 수요자(관료주의) 중심에서 공급자(주민편의주의) 입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기술적 대응으로 FTA 이겨내자

전남도농기원 32작목 대응방법 제시 책자 발간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은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 시대, 기술적 대응으로 전남농업 이렇게 이겨내자'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전남도의 현황 및 농업여건 변화와 함께 FTA 추진 배경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FTA가 발효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6개 분야 32작목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개월간 전문연구·지도직 공무원 3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6개분야 32개 작목에 대해 기술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축산분야의 경우 거세 비육우 1등급(육질) 이상 출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조사료를 오는 2013년까지 8만ha(전국 면적 대비 32%)로 늘리고 콩비지 등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TMR) 급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민수 원장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살려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을 차별화해 믿고 찾는 상품을 생산해야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